



국방문서의 정수: "감정을 배제하고 목적만 남긴다"

- 비문(非文)의 배경: 군 문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용사를 쓰지 않습니다. "매우 위험함"이 아니라 "치명률 80% 이상"이라고 써야 합니다.
- 책임의 명확화: 누가 이 명령을 내렸고, 누가 실행하며, 실패 시 누가 책임지는지가 문서 구조(결재선)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.
- 데이터 아카이빙: @doom549 계정에 올라온 지침들은 한국군이 지난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립한 **조직 운영의 알고리즘**입니다. 이를 분석하는 것은 당시 군 조직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.